

가족관계가 정서능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Family relationship on Emotion competence

박은혜, Eun-hye Park*, 이수미, Su-mi Yi**, 조경자, Kyoung-ja Cho***,
김혜리, Hei-rhee Ghim***, 송인혜, In-hye Song***.

요약

본 연구는 가족관계가 정서가 개입된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인 정서능력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또한 가족관계의 점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정서능력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는 Mayer와 Salovey(1990)의 정서지능에 입각하여 문용린(1997)이 제작한 자기보고식 정서능력 척도와 건강한 가족관계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가족관계 척도(양옥경, 2001)를 사용하였으며 168명의 대학생이 참여하였다. 연구 결과, 정서능력과 가족관계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가족관계가 좋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더 높은 정서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정서능력, 가족관계.

1. 서론.

인간이 살아가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과 수많은 사회적 관계 중에서 가족은 출생과 더불어 형성되는 인간의 기초적인 사회집단으로,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등 가족내에서 경험하게 되는 인간관계는 인간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가족관계는 가족구성원 상호간의 인간관계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에 비하여 공동체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는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역할구조, 권력구조, 갈등, 의사소통 등 기본적인 상호작용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유영주, 김정신, 김순옥, 1996). 더욱이 인간의 기본적 인성이 유년기에 형성되며, 이 유년기의 생활이 주로 가족 안에서 이루어짐을 생각해 볼 때, 가족간의 상호작용은 사회적 관계의 기초가 될 것이다.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지적 능력 뿐 아니라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자신의 정서 경험과 정서가 개입된 사회적 교류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능력 즉, 정서를 표현하고, 이해하고, 조절하며, 정서에 반응하는 능력을 정서능력(emotional competence)이라고 한다(Saarni, 1990, 1999).

정서능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개념 중 한 가지는 정서지능(EI, Emotional Intelligence)이다. 정서지능은 Salovey와 Mayer(1990)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정서적 정보를 다루는 능력이 필요하고, 개인에 따라 이러한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가정 하에 제안한 개념으로, 이들은 정서지능을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평가하고 표현하는 능력,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성취하기 위해 정서를 이용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일종의 사회적 지능이라고 하였다.

Goleman(1995)은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성공과 적응이 정서지능에 의해 좌우된다고 주장하며, 정서가 인지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인지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Campos, Mumme, Kermorian와 Campos(1994)도 정서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정서지능은 사회적 능력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할 줄 아는 인간관계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왕정희, 2000). 사회적 능력이란 타인과 효과적이고 만족스런 상호작용을 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타인의 역할을 수

* 주저자 :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 e-mail: peh1228@hanmail.net

** 교신저자 :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 e-mail: graceysm@hanmail.net

*** 공동저자 :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용하고, 상황에 적절하게 사회적 기술이나 묘안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O'malley, 1977).

선행 연구들은 높은 정서지능이 친사회적 행동, 부모의 온정, 긍정적인 동료관계나 가족관계와 같은 긍정적 결과들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Mayer, Caruso & Salovey 1999; Rice, 1999; Salovey, Mayer, Caruso, & Lopes, 2001). Kaur와 Jaswal(2005)는 정서지능척도(MSCEIT, Mayer-Salovey-Caruso Emotional Intelligence Test, 2000)와 가족환경척도(Family Climate scale, Shah, 1990)를 17-18세의 청소년 200명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두 척도 간에 유의미하고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와 정서능력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고, 가족관계를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정서능력의 하위 요소들 간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충북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171명이 참여하였다. 3명의 피험자가 설문지 중 일부 응답을 누락하여 168명(남자 72명, 여자 96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측정 도구.

2.1.1 가족관계 척도.

본 연구에 사용한 가족관계 척도(양옥경, 2001)는 가족체계내의 관계적 개념에 초점을 두고, 가족내 구성원들 간 관계에 대하여 가족원 개인이 평가하는 도구로서 가족의 내부적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상호작용에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본 척도에서는 건강한 가족관계란 가족원의 인격을 서로 존중하고 가족원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져 체계로서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상태와 과정으로 보고 있다. 가족관계 척도는 정서친밀요인 11문항, 인정책임요인 7문항, 수용존중요인 6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정서친밀요인은 가족관계에서 정서친밀관계의 유지를 위해 정서적 표현이 얼마나 적절한지, 정서적 반응양식이 얼마나 긍정적인지를 측정한다. 특히 긍정적 정서표현은 정서적 반응 양식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서 친애, 따뜻함, 온화함, 지

지, 사랑, 위안, 행복, 기쁨 등을 의미하는 요소이다. 건강한 가족관계의 질을 위해서는 가족구성원들이 지지적인 가족 호나경 내에서 긍정적 정서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정서적 교류에 참여하는 정도가 중요하다(Collins, Catherine, & Heather, 1999).

인정책임요인은 건강한 가족관계를 향상시키는 요소로서, 가족구성원이 얼마나 자율적이고 유연한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측정한다. 자율성은 가족구성원들이 그들의 생각이나 느낌,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족원들이 다른 사람들과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사람들이 가진 주관적인 견해나 독특함을 수용하고 인정하며, 자신이 가진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고, 불확실성이나 양가감정, 의견의 불일치 등을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Beavers, 1985).

수용존중요인은 건강한 가족관계의 중요 특징으로서, 가족구성원간의 공감 노력의 정도를 측정한다. 공감은 가족구성원이 서로에게 보이는 관심의 정도, 개별 가족구성원의 흥미와 활동에 부여하는 특별한 가치를 적절히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관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척도의 Cronbach α 신뢰도 계수는 $\alpha = .90$ 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의 Cronbach α 신뢰도 계수는 정서친밀 $\alpha = .91$, 인정책임 $\alpha = .85$, 수용존중 $\alpha = .82$ 로 나타났다.

2.1.2 정서능력 척도.

본 연구에 사용한 정서능력 척도는 Mayer와 Salovey(1990)의 정서지능 초기 모형(3영역 10요소 모형)에 입각하여 문용린 (1997)이 제작한 자기보고식 정서능력 척도(5영역 47문항) 중 대인관계기술 영역을 제외한 네 영역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하위 영역은 정서인식 8문항, 동기화 7문항, 공감 7문항, 정서조절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정서인식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재빨리 알아차리는 능력이다. 동기화는 자신의 정서를 이용하여 주어진 상황에 자발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며, 공감은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여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능력이다. 정서조절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척도의 Cronbach α 신뢰도 계수는 $\alpha = .79$ 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의 Cronbach α 신뢰도 계수는 정서인식 $\alpha = .47$, 동기화 $\alpha = .49$, 공감 $\alpha = .72$, 정서조절 $\alpha = .87$ 로 나타났다.

3. 결과.

가족관계가 정서능력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족관계 척도의 하위 영역들과 정서능력 척도의 하위 영역들과 대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관계의 하위 영역과 정서능력의 하위 영역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가족관계와 정서능력의 하위 영역과의 상관에서는 공감($r=.829, p<.01$)과의 상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조절($r=.187, p<.01$)과의 상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능력과 가족관계의 하위 영역과의 상관을 보면, 정서친밀은 공감($r=.726, p<.01$), 동기화($r=.690, p<.01$), 정서인식($r=.634, p<.01$), 정서조절($r=.230, p<.01$)의 순서로 상관이 있었다. 인정책임은 공감($r=.467, p<.01$), 동기화($r=.404, p<.01$), 정서인식($r=.348, p<.01$)의 순서로 상관이 있었다. 수용존중과 정서능력 간에도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으며($r=.198, p<.01$), 하위 영역과의 상관에서는 공감($r=.668, p<.01$), 동기화($r=.603, p<.01$), 정서인식($r=.543, p<.01$), 정서조절($r=.204, p<.01$)의 순서로 상관이 있었다.

가족관계에 따라 정서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가족관계 점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나누어 정서능력 척도의 획득 점수를 살펴보았다. 표 2에 가족관계에 따른 정서능력의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관계의 하위 영역 모두 평균 점수가 높은 상위집단이 평균 점수가 낮은 하위집단보다 정서능력

〈표 1〉 정서능력과 가족관계의 상관관계(N=168)

정서능력	가족 관계			
	정서친밀	인정책임	수용존중	전체
정서인식	.634**	.348**	.543**	.682**
동기화	.690**	.404**	.603**	.758**
공감	.726**	.467**	.668**	.828**
정서조절	.230**	-.032	.204**	.187*
전체	.123	-.031	.198**	.133

* $p < .05$ ** $p < .01$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정서능력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족관계(가족관계 점수가 높은 집단, 가족관계 점수가 낮은 집단)에 따라 정서능력에 유의미한 단순주효과가 나타났다($F(1, 82)=115.777, p<.001$). 이는 가족관계에 따라 정서능력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가족관계의 하위 영역들에서도 각 하위 영역에 따라 정서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서친밀 영역($F(1, 82)=85.108, p<.001$), 인정책임 영역($F(1, 82)=57.240, p<.001$), 수용존중 영역($F(1, 82)=81.192, p<.001$)에서 유의미한 주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가족관계에서의 정서친밀관계, 인정책임관계, 수용존중관계의 건강한 정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정서능력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4. 논의.

본 연구는 가족구성원 상호간의 인간관계인 가족관계와

〈표 2〉 가족관계에 따른 정서능력의 평균과 표준편차(N=84, ()는 표준편차)

가족관계	정서능력	정서능력			
		정서인식	동기화	공감	정서조절
정서친밀	상위집단	4.00 (0.32)	4.06 (0.31)	4.09 (0.33)	3.90 (0.56)
	하위집단	3.27 (0.38)	3.26 (0.38)	3.26 (0.35)	3.55 (0.52)
	합계	3.63 (0.51)	3.66 (0.53)	3.68 (0.53)	3.72 (0.57)
인정책임	상위집단	3.94 (0.33)	4.01 (0.33)	4.05 (0.30)	3.86 (0.64)
	하위집단	3.31 (0.42)	3.29 (0.41)	3.27 (0.37)	3.67 (0.59)
	합계	3.63 (0.49)	3.65 (0.51)	3.66 (0.52)	3.77 (0.62)
수용존중	상위집단	3.93 (0.39)	4.01 (0.36)	4.06 (0.35)	3.94 (0.63)
	하위집단	3.29 (0.35)	3.27 (0.35)	3.25 (0.31)	3.48 (0.51)
	합계	3.61 (0.49)	3.64 (0.51)	3.65 (0.52)	3.71 (0.62)
전체	상위집단	3.99 (0.33)	4.07 (0.31)	4.11 (0.29)	3.94 (0.56)
	하위집단	3.21 (0.35)	3.18 (0.32)	3.16 (0.29)	3.61 (0.56)
	합계	3.60 (0.52)	3.62 (0.55)	3.64 (0.56)	3.78 (0.58)

정서능력의 관계를 살펴보고, 가족관계에 따른 정서능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족관계는 정서능력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가질수록 높은 정서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관계에 따라 정서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족관계 획득 점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정서능력을 살펴본 결과, 가족관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집단이 낮은 점수를 받은 집단보다 정서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서능력과 가족 환경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Kaur & Jaswal, 2005).

정서능력의 하위 영역과 가족관계의 관계를 살펴보자면, 정서능력의 하위 영역 중 가족관계와 높은 상관을 보이는 영역은 공감과 동기화 영역이었다. 건강한 가족관계의 질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관심을 통해 발전되며, 가족 구성원이 서로의 활동과 관심영역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포함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가족 관계에서 정서 친밀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정서를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을 생각해볼 때, 두 영역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가족관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집단, 즉 더 건강한 가족 관계를 이루고 있는 집단은 정서능력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는 가족관계의 모든 하위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결과였다. 정서능력이 한 인간이 유능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회적 능력과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인간문제해결력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볼 때(왕정희, 2000), 태어나 처음으로 인간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가족 내의 상호작용은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 간의 인간관계의 이해는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데 필요한 정서능력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5. 참고문헌.

문용린(1997). **EQ가 높으면 성공이 보인다**. 서울: 글이랑.

왕정희(2000).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 및 대인 문제 해결력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영주, 김정신, 김순옥(1996). **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Campos, J., Mumme, D., Kermoian, R., and Campos, R. G. (1994). A functionalist perspective on the nature of emotion. In N. Fox (Ed.), *The development emotion regulation: Behavioral and biological consideration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Vol.59, pp.284-303.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Kaur, R., and Jaswal, S. (2005). Relationship between strategic emotional intelligence and family climate of punjabi adolescents. *Anthropologist*, 7(4), pp. 293-298.

Mayer, J. D., Caruso, D. R., and Salovey, P. (1999). Emotional intelligence meets traditional standards for an intelligence. *Intelligence*, Vol.27, pp.267-298.

O'Malley, J. M. (1977). Research perspective on social competence. *Merill Quarterly*, Vol.23, pp.29-44.

Rice, C. L. (1999). A quantitative study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its impact on team performa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Pepperdine University, Malibu, CA.

Saarni, C. (1990). Emotional competence: How emotions and relationships become intergrated. In R. A. Thompson (Ed.), *Socioemotional development*(pp.115-182).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Saarni, C. (1999).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competenc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Salovey, P., and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Vol.9 No.3, pp.185-211.

Salovey, P., Mayer, J. D., Caruso, D., and Lopes, P. N. (2001). Measuring emotional intelligence as a set of mental abilities with the MSCEIT. In S. J. Lopez, & C. R. Snyder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assessment*. Washington DV: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